

주간 출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 2005년! 2500명! “꿈”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참 성도와 참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습니다 (눅 4:43)**

참 성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히 깨지 않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의 의는 모든 것을 씌웁니다. 따라서 참 성도를 구별하는 기준은 기독교 윤리가 규정한 그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갈 1:7). 왜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도들과 교회는 이 진리를 매우 순진하고 단순하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과 교회가 사회의 다른 단체와 다를 바 없이 된 것.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은 믿음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교회를 교화 되게 하려고 하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 본래의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외의 교회의 본질이 마지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교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 성도와 참 교회의 본질이 성교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별차 3월31일이다. 그러니까 아직 3월1일과 해도 괜찮습다. 3월에는 다수의 추후의 전 성도들은 교회로 본 적이 되어야 할 성교를 준비하는 이름다운 봄날이 되어 원합니다. 2500명 이상 성교를 위해서 더 나은 기회를 마련하고, 이미 27개팀 248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성교를 다녀오셨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에도 변화없이 성교를 향해 참여하십시오! 매일마다, 아직도 성교를 가는데 주저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성교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매일 진행되는 CMTC에서 오셔서 또 거기에서 계속하십시오. 그 외에도 계속 성교 중에 있는 성실훈련과 개인훈련 등 성교를 위한 훈련들이 계속합니다. 모든 훈련에 충실히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십자가의 위대한 영혼들을 향해 나가기만 바랍니다.”

오늘(6일) 제4차 CMTC 훈련 안내(첫째 날)

|     |               |                |      |
|-----|---------------|----------------|------|
| 제1강 | 선교의 성경적 기초    | (오후 6:10~7:00) | 갈릴리홀 |
| 제2강 | 총현교회 비전과 선교정책 | (오후 7:10~7:40) | 갈릴리홀 |
|     | 전도 특강         | (오후 7:40~8:10) | 갈릴리홀 |

## 2005년 제2차 선

차시의 오느(6인)

1부에서 5부예배

신에 의합니다.

1. 已知  $a, b, c$  是正实数，且  $a + b + c = 1$ ，求证： $\frac{a}{b+c} + \frac{b}{c+a} + \frac{c}{a+b} \geq \frac{3}{2}$ 。

이번 주 수요일(9일),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세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은 교회 주변 전도의 날”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결정하고 행한 일이 아니라神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되고 진행합니다. 참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화성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노력과 방법을 앞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위 현재 유행하고 있는 전도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며, 적절한 용어와 인간성가를 지닌 예수님이 10:45와 미련한 전도의 방법에 생명을 결단한 바울(고전 2:12)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이번 주 수요일(9일)을 준비하십시오. 수요일 1시에 예배에 꼭 참여하시고 이어서는 모든 순회 구역에서 성령충만-여러모로 애매하고-교회주변 전도신상에 따라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리 많은 교회에서 수요일(여전도회) 중심과 토요일(바나나) 중심에 이르기까지 전 주일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많은 분들이 영혼이 돌아온 듯 누리는 기쁨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 전도를 통한 기쁨, 수요일 성경공부를 통한 만남으로 심자기의 은혜가 넘치는 수요일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그릇 (금요일)

##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구하는(The Study of God), 곧 신학을 인간의 영역이라 하고 생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의 단호한 성취와 그의 마음을 내리 표현할 수 있가? 하나님은 존재를 초월한 초자연 신이심을 넘어서 무한하신 분이 아닌가? 따라서 인간은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울 수 없다. 하나님은 아담을 잃은 아들의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에 의해 깨지 않을 때만 진리의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워 주시는 것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줄 수 있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속성이 기록하신, 의로우신, 선, 불변하시는 성령을 알 수 있다.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믿음에 주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 또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울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신 하나님에 관한 일들이 우리에게 깨어주 한다.

ישועה (The Tithy)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의 한계 이외의 한 계, 지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영역에서 안으로 들어간 히브리인과 또한 한계 안으로 들어갈까 완전한 상생을 보고서도 안다. 영예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과 같아서 한 한 분의 동시성에 있다. 그러므로, Trinitiy)는 하나님의 세 겹 삼을 강조하고, Trinitiy)는 그의 일체로 하나님을 강조한다. 그는 셋이 하나님이다. 사실 이 ישועה(Yesua)는 단 하나의 성에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속물이 이 성에 대한 성경에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다. 예수회에는 대성경적 증거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유일성과 또 그의 삼위를 찾아 지참함으로써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님 한 분의 삼위를 믿는다. 단수종교인 기독교. 복수종교인 다신교. 기이한 개념은 기이한 개념은 하나님 자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자들 즉 2003 년 5월 27일, 하나님의 유일성을 가장 명백히 한게 나타내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다. "...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한 분이여 여호와"이다. 그리고 이사야(40:3)에 "미혹 설화 할 때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셨던 32절. 이사야(46:9)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증거하셨다. 또 하나님의 자의 존엄 통하여 백성과 종을 자의 자의 삶에 모습을 보여주셨다. 선지자 이사야도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 사 46:9, 사 43:10, 바울과 야고보도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 (2003 8-4 ~ 43, 46, 21절).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동시에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합동적인 유일성으로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500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셨다. 구약성경은 우

기리 삼유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책으로 구제에서 사용된 하느님의 이름을 통해서 삼유암들을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예로만하면Bhim이다. 이것을 반하면Bhi가 되고, 복수로 Bhi가 되고, 이 말이고 하느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복수형으로 쓰신 구제와 여러 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물을 만드셨다.”(창 1:26) ...우리 중 누가 되었습니까? (창 32:2) 하느님과 내리고 가서 그들의 이름을 혼돈케 하여... ”(창 11:7) ...누가 우리를 위하여 걸고 매에 바르도록 하여 주었습니까? ”(시 68) 특별히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삼유암들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느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이어서 메시아를 하느님과 동등하게 개칭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실 것이다. 이는 한 이가 우리에게 개칭 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요한은 그 4개에는 찬사를 맺었고 그 이름은 기요자라, 모사라, 잔혹하신 하느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요(사 9:6) 또한, 바 사나드라고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과 동일 하신 영원한 보라실 성령으로 나타내 52) 책으로 하느님과 구분되어 있으나 또 그의 같은 본으로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삼유암들을 이해할 수 있게된다(창 1:26) 사 48:16, 이처럼 구약성경에 하느님에 대해서 서명하거 구분되어 있는 동시에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이가 해님에 앞서갈수록 대한 증가는 신약성경에서 더 분명해진다. 신약  
에서는 해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기록하고  
있다. 또 이 세 명칭은 동등하거나 각각 다른, 그러나 같은 위격에 있는 셋  
이라는 것을 알하고 있다(마틴 12, 또한 해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명백히 보여주  
고 있다(요 6:27, 막 4:6, 요 17:1-6, 요 14:23)). 그리스도 역시 해님만을 말하고  
있었다(요 16, 17, 마 28:19-20, 히 3:3). 그러나 세는 관제는 해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을 가지고 계신다(마 9:9, 마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서 해님을 고백하셨다(요 20:28)). 이러한 성경 관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  
명히 증거하고 있다.

“상염자는 삼촌 쪽이 더 강할 수밖에요. 전통에는 외가보다 친가 집안에서 태어난 게 더 높고요. 대대로 대대로 더 나은 해산의 문화습관을 전하는 게 노릇이지 아니요. 더 나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하고요. 더 나은 집안에서 태어난 해산의 문화습관을 가장 잘 살려주는 일이지요. 이 말은 삼촌과 외삼촌이 더 나은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집안이 더 나은 문화와 전통을 전하는 세대가 되고, 인격이 되고, 더 나은 해산의 전통을 표현한 말이요. 해산에 교하는 해산의 신비로움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고 하기도요. 더 나은 외가보다 나은 친가 쪽으로 나아가게 강요를 했을 것이고, 따라서 상염자는 인간 문화의 해산의 전통을 배워보지 못한 거고, 그리고 인간 문화의 해산은 해산이고요. 더 나은 해산은 세상에 생기는 거고, 전하는 것은 인간을 지니고 태어나는 거요.”

# GOD IS MAKING NEW THINGS

*"(15) 'I am the LORD, your Holy One, The Creator of Israel, your King.' (16) Thus says the LORD, Who makes a way through the sea And a path through the mighty waters, (17) Who brings forth the chariot and the horse, The army and the mighty man (They will lie down together [and] not rise again; They have been quenched [and] extinguished like a wick); (18) 'Do not call to mind the former things, Or ponder things of the past. (19) 'Behold, I will do something new, Now it will spring forth; Will you not be aware of it? I will even make a roadway in the wilderness, Rivers in the desert.' (Isaiah 43:15-19)*

"Behold, I will do something new, now it will spring forth; will you not be aware of it" (v. 19)? There is excitement in knowing that God is going to do something new. The God who says, "I am the Lord, your Holy One, the Creator of Israel, your King," is the one who actually makes new things (v. 15). Our church needs to hear this message because we need God to change us and make new things. Over the past two thousand years, the universal church has experienced many changes, some negative and some positive. The good changes came and still come from biblical values, and the bad changes happened and still happen because of human values. When people look to methods, church politics, or what their pastor, elders, ministry staff, and congregation members want concerning changes within the church, trouble abounds. Many churches worldwide are changing their worship programs, music styles, and fellowship patterns based on what is popular or conventional. Their human centered decisions result in people thinking the church is theirs, not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highlights human talent, and thus loses its spiritual power. Isaiah heard God's message, "Behold I will do something new" but he did not know what God was going to do. He just followed God, and did what God wanted.

If you want to follow God and let Him make new things happen, then you need to let go of the past. The first step toward experiencing something new with God is freeing yourself from the things that happened before. Remembering the past is an integral part of your faith and worship, but not holding on to it. Israel recalled their Red Sea experience, "Thus says the Lord, who makes a way through the sea and a path through the mighty waters, who brings forth the chariot and the horse, the army and the mighty man (they will lie down together and not rise again; they have been quenched and extinguished like a wick)" (v. 16). God allowed Israel to cross the Red Sea, but Pharaoh's mighty army drowned. God always fulfills His promises. My dear friend, new things always start from the past. When you remember what God did for you before, it excites your heart and strengthens your faith. God is always faithful. He always gives hope for the future. Israel had evidence, and so do you. When you look back, you can see God's work in your life.

Too many people hold on to the past, making it impossible to move forward. You must head toward the future, "Do not call to mind the former things, or ponder things of the past" (v. 18). You need to repent and start your future. Do not go back to the past. You can remember the past, but you cannot hold on to it. You need to let go and move forward. God will give you an exciting future of new things. You need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to

practice your faith for the kingdom of heaven. As such, do not ignore the past, or be satisfied with it and stay there. You have to head toward new frontiers every day because God has a plan for you. Today is the day you can start new. If you have faith, you will have great expectations because God is a Holy God, Creator God, King of Kings. The more you expect the more blessings of new life you will receive. Hebrews 11:8&10 say, "By faith Abraham, when he was called, obeyed by going out to a place which he was to receive for an inheritance; and he went out, not knowing where he was going... for he was looking for the city which has foundations,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During his earthly life, Abraham did not live in that house, but he always moved forward in faith. As a believer, you must anticipate new things. God calls His people to turn away from the past, and with eyes of faith look forward to what He will do next. You need to face forward and start moving.

Your life is God's purpose. You seek Him with your faith. Ultimately, it is an issue of trust. Do you trust God? Do you allow God or yourself to direct and maintain your life? Do you want God to control and determine the future of this church? So often churches spend enormous time investigating programs, activities, and objectives that they want to see the church pursue. They present their ideas and discuss all possible ramifications, both good and bad, when the truth of the matter is that they should focus more time on corporate prayer. Choong Hyun needs to seek God's will together. Do we pray for Him to bless only this church ministry or to show us new directions that will challenge us and stimulate us to rely more on Jesus Christ? Please, let us pray for Jesus to give us new experiences, especially God's grace, and more understanding in the power of His blood.

I hope this church derives its source of power from Jesus Christ. This is our reality, eternal life, prayer, praise, worship, mission, love inside for each other and outside for our neighbors. This is the future. Individually and corporately, we have to trust God because He wants us to do His work. Without denying yourself, you cannot do it. Focus on Jesus, trust only God, deny yourself, and this church will do God's new things. Are you excited? Look at yourself. You are selfish and sinful. You have no talent, but Holy God cleanses you with the blood of Christ and makes you His own child, so that He can do new things through you. My friend, this is only possible if you trust Him. Do you trust Him to make new things in you and in this church? On this fifth Sunday of Lent, remember Jesus' walk to the cross, and trust Him with all things new. Amen. 

## 다음 주일 설교

##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sup>15</sup>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sup>16</sup>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침령을 내고 <sup>17</sup>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있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sup>18</sup>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sup>19</sup>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 43:15-19)



김성원 목사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9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은 실로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15절). 바로 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주의 감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천 년 동안 이 땅의 교회들은 수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좋은 변화도 있었고, 나쁜 변화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좋은 변화들은 항상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 생겼습니다. 반면에 나쁜 변화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중시할 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것에 의존할 때나 교회에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면 반드시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많은 교회의 예배 프로그램이나 교회 음악, 성도 간의 교제 방법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그런 인본주의적인 결정 뒤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재능만 부각시킬뿐 영적인 노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나 이사야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만일 하나님을 따르고 그 분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과거의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만 우리가 결코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예배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회고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침령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있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6, 17절).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지만, 바로의 군대는 홍해의 거친 물에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일은 언제나 과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다시금 믿음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가 새 일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속에는 그 증거가 살아있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가슴 속에도 동일한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18절). 과거의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 출발하십시오. 물론 가끔은 과거 일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새로운 일들로 가득찬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시길 것입니다. 천성 길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말씀이 모두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일들을 등한히 여겨서도, 혹은 거기에 만족해 그대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아침도 우리가 새 출발을 결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창조주 이시며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하십시오. 더 많은 은혜들이 우리의 새로운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 11:8, 10).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지시한 대로 나아갔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과거로부터 돌아설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순종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을 향해 움직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교회의 미래를 주장하고 결정하도록 맡겨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경쟁하듯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동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가능한 한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성공을 위한 장단점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합심하여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단지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을 촉박해 달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자락을 줄 만한 새로운 것들을 보여 달라고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맛보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 믿음으로 나아가라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실존, 영원한 생명, 기도, 찬양, 경배, 전도, 성도 간의 사랑, 이웃 사랑 등이 모든 것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이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자신을 기만해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의 몸 된 이 교회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날 사순절 기간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길 바랍니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 복 있는 자 (시 32:1,2)

... 공롭게 여기는 자 ... 마음이 청결한 자 ..." 세상의 복과 전혀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복만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의탁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 11:2). 우리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복이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현실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이르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한 사하하셨나이다"(시 32:5). 죄사함의 은사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롬 5:6-8).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의인이 복 있는 자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죄와 형벌로부터 구속함을 받는 축복.** 복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대속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을 강조할 때 우리를 묶는 그 사슬은 더욱 강해진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롬 4:5). 믿음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한 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진정한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마 9:6).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다.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 받은 자이다. 중풍병자에 비한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자신의 뜻과 생각만을 내세운다.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가 있음에도 우리는 악한 것들을 좇고 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라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행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눅 7:47). 우리에게 은총의 삶이 열렸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다. 불평이 아닌 오직 감사 뿐이다. "자녀들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나니"(요인 2:12). 우리는 진정한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행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얻었는가? 오랜 신앙생활은 있지만, 예수님은 없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 하늘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회복된 자는 용서에 대한 참된 기쁨이 있다.** 죄사함의 복을 받은 자는 죄 사함에 대한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다. 그러나 외식한 자에게는 기쁨이 없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한 것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요"(고후 4:6,7). 이 말씀 안에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어둠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 영광의 빛이 내리셨다. 이 보배는 우리의 절그릇에 담겨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슴 속에 내려진다. 우리의 노력과 믿음으로 절그릇이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죄인 됨을 고백하며 죄 사함을 받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참 그리스도인은 영광이 빛을 품고 있어야 한다. 오직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1:17-19).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오직 믿음이어야 한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빈 무덤을 찾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들의 신앙이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눅 24:47).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맡기셨다(행 1:2).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신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가 우리의 관심사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오직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나를 간절히 부르셨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결심해 나아가자(찬 318장). "허물어 사함을 받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절그릇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케 하소서."

## 뜨거웠던 새생명교회의 겨울



짐을 못 이룰 정도의 추운 날씨는 걱정을 하면서도 현지 "새생명교회"에서 처음으로 세례자를 세우셨다는 기쁨과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감사함으로 G국 탐방팀은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목자 없는 양장이니 유람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도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마 9:36-37).

도착하자마자 찾아가 세례식을 베풀었던 10명 남짓의 젊은 예배당은 우리 탐방팀의 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내기에도 힘든 좁은 공간이었지만 성도들의 기쁨의 찬양으로 더 확 차는 듯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의 눈물을 감출 수 없었던 10명의 세례자와 3명의 학습자를 세운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처음에 총회교회 외선부에서 섬기던 형제자매 4명이 귀국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새생명교회는 조금씩 늘어난 예배자들로 지금의 예배 공간을 필요로 했고 1년이 지난 지금은 65명으로 늘어난 성도들로 비좁은 처소를 옮기게 되었을 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당기 어려운 일대로 때문에 주일에만 2시간씩 일차한 처소에

서 행해준 주일 성찬식에는 전 성도가 참석할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돈된 모습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갈 훈련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총현성례부에서 준비해준 떡과 포도주로 준비하고 정결한 목사의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맡기셨다(행 1:2).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신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가 우리의 관심사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오직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나를 간절히 부르셨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결심해 나아가자(찬 318장). "허물어 사함을 받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절그릇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케 하소서."

외선부에 출석하고 있는 현지 가정들 방문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자녀들과 형제자매를 한국에 보내고 우상을 섬기며 믿을 없이 살아가고 있는 G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새생명교회를 소개하는 것은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바른 접촉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로 자라날 수 있는 곳이었기에 현지인 선교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씨뿌림의 헌신으로 늘어나지만 아직은 믿음이 작아 성도들로부터 수전되는 헌신으로 교회를 지어나가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발치침, 베갈마 정신도 현지 선교사 부부의 헌신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탐방은 오히려 우리들이 더 은혜 받고 더 도전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배심이었습니. 감사드립니다.

(정선현 정복)

"G국의 새생명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난 지 1주년이 되었다.

이해 한 분의 목사님과 세 분의 장로님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현지를 방문하여 성례식을 행하였다.

###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 기간                 | 팀        | 팀장  |
|--------------------|----------|-----|
| 2월 21일(목)~3월 1일(화) | 13교구 3지역 | 최창남 |

###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 기간                 | 팀   | 팀장  |
|--------------------|-----|-----|
| 3월 3일(목)~3월 11일(금) | 지역2 | 이철호 |

## 장로 칼럼

모이는 일에 힘쓰며  
선교와 전도에 동참합니다

김 은 호 (교구위원장)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하게 생활하자”(골1:27)는 주제 성구와 주제 찬송인 ‘올은 길 따르라 의의 길로’(찬 265장,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자’는 교구 표어를 주시고 한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는 교구

다윗의 부인 미갈의 사적사항 61:1-23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기는 다윗 임금의 충을 주며 온 백성과 함께 기뻐하는데 미갈은 구경만하고 비판하다가 자취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미갈과같이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되지 말고 함께 기뻐했던 백성들과 같이 단기 선교에 동참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인 1월 12일 전도에 동참하여 강권하여 대대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후 명하신 마태 28:19-20, 마 28:19, 주께서 생명을 얻는 일에 힘쓰는 일에 교구원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아야 함을 소망합니다. 지난 2월 13일 (주인종행)에는 C국의 새 생명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은 현황이 소개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주는 소식이었는지 씨 뿌리고 거두는 자의 기쁨이 이런 것이며 복음이 기뻐했던 기쁨(눅 1:8)은 공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방법은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은 후 기도로 준비하고 교회에서 정해놓은 나라 혹은 내 이웃과 교회 주변에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또한 건강성 여지껏 없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여지껏 없을 때는 헌금과 기도를 후원하며 동참하여 보내는 선교사 또는 전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현의 전 성도들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교구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다니시는 마음이며 완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마음입니다. 보잘것 없는 자녀요(골 2:3)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 구원 얻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위된 백성(벧전 2:9)의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나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골 1:3-4, 살전 2:17).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일꾼들이 카루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구

십자가의 도에 대한 위임 목사님이 많으신 많은 개우침과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진한한 도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진한 믿음은 받는 것이 아니고 내어주는 것이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천국일꾼을 양성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힘쓰며, 이웃 사랑하는 일에 봉사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 직침들의 선교후기

## 영혼을 만나게 하신 이유

죄인을 사육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미안하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사단의 방해로 수없이 많이 느꼈다. 2005년 첫 팀, 직침 첫 팀, 미안하 정탐팀으로 그 역활의 막중한 나 나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내가 잘 해 보려고 애쓰지 말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간담떨 팔자고 되뇌이며 기도했다. 나를 십자가 밑에 내려 놓으려면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함을,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미안하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세력에 잡들어 있는 그들에게 십자가 생명의 말씀의 전하고 또한 잘 받아들이게 인도하셨다. 우리는 보잘 것 없는 준비와 노력으로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안하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사역 기간 동안 주님의 이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생각난다. 그러나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과 평안함과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도 고맙지 않을 수 없다. 미안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심을 믿는다. (셀 똥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시 51:15). 준비한 서문 언어로 시작한 사역, 전도지를 읽고 교회를 들어 주었을 때 그들의 눈빛과 표정을 통해 이미 복음에 대한, 어떤면 우리보다 더 영혼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저들에게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저들의 정서, 언어 저들의 삶이, 전하지 않았음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이미 믿음의 행위로 예정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가셨고 사도바울이 가던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희생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길이 부활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 영생하는 축복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질 재산, 권리, 도덕, 전도, 명예, 권세, 재산, 인격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벧전 1:4)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참된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려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전 1:18)는 말씀을 의지하여 길 되시고 진리 되시어 생명을 되시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 하는 삶에 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부흥을 위해 전하는 교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할 32)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는 오늘 부흥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구의 전 성도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각 구역마다 17명, 각 지역마다 1 구역, 각 교구마다 1 지역 이상씩 보내나기 하여 교구와 교회 부흥에 전력해야겠습니다. 그러하여 연 초에는 570개 구역, 130개 지역, 1675세대로 시작하였으나 연말 때는 다섯 달만만 달만만 총과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보고를 교회 앞에 드릴 수 있는 일에 전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새 가족 양육에 힘쓰는 교구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신실한 조직으로서 새 가족을 위한 양육 부흥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가집니다. 부여된 임무가 1) 새 신자에 관한 사항을 교구장에게 보고하고 2) 새 신자가 공 예배에 잘 참석하고 새 가족들의 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3)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고 성장하도록 힘쓰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열심을 다하여 총현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안내하면서 겸손히 순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새 가족 양육에 크게 기여할 것을 소망합니다.

## 모이기를 힘쓰는 교구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운동을 통하여(행 1:5)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역사 이어져왔습니다. 주일 4주 예배 후에 있는 교구 모임은 교회 공동생활에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모임으로 교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끈이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요망입니다. 모임 속에는 복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간의 이름나눔은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마 5:24)과 사도 바울이 강조한 화평(골 3:15)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와 교회에 관한 소식들이 곧 위임목사님의 목회 방편에 따르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한 결속은 곧 교회의 한과 기쁨을 향하여 오늘부터는 물론 서로의 삶과, 총사, 교육 등 교회 5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에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1차 정기회(2월 18일)에 5,700여 명이 참석한 성도들의 응징과 말씀과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참여해 있는 총현교회의 자력과 가능성을 보여 주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은혜의 말씀은 우리 영혼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으로 축찬 되었습니다. 버리기는 교구에 속한 모든 성도는 날마다 마음을 길고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행 2:46) 자들이 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의 잔치, 월요 새벽기도의 요한복음과 금요 전례, 그리고 전향 중인 사신절 기도에서 온속된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하여 은혜 받으시고, 주일 성수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사 56:13-14)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쬘는 오후 들어닥친 이방인에게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가이 맞아 주었고, 많은 가족들이 혹은 이웃들이 모여 찾아올 듯 한껏배에 우리에게 선한 만무함을 우리에게 밝히며 우리는 복음 안에 빛난 자라 되어 그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쳤습니다”를 연발하였고, “아멘”하면서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이 부른 합창은 우리 귀에 합성처럼 들렸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이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눈물짓게 하였습니다. (손정혜 권사)

## 한 영혼을 위한 증인들의 고백

은총을 입은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금요집회 때에 고백했던 선교 보고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 \*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재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 \* 큰 고난의 불사를 보게 해 주었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도록 해 주었다.
- \* “너희가 헌신하라고 하신다는 나를 의지하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셨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심을 보았다.
- \* 때때로 전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임을 알 수 있었다.
- \* 여러가지는 나라로 그리스도를 전하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기적이고 표적이었다.
- \*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 \* 우리의 최선 필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여주었다.

## 유치부 성경학교 후기

## 또 언제 성경학교를 하죠?

저는 얼마 전에 끝러서 겨울성경학교에 왔습니다.

“어제 교회 갔다 왔는데 또 가야 돼? 엄마는 어디 있을꺼야?”

엄마랑 붙어 있기 좋아하는 저는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유치부실에 오니까 저무만 웃음이 나고 즐거웠어요. 엄마가 안 보여도 괜찮았어요.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완가를 했어요.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천국에 갔을 때 어떨까?” 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에서 저도 완가를 쓰고 즐겁게 춤도 추었고, 저는 진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어떤 방에선 서로 먹여 주는 걸 했어요. 여자 친구랑 하는데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다른 방에서는 친구들과 그림자 인형극도 봤어요. 바다메요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배웠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가겠조?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 한대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집에 올 때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또 언제 성경학교를 하죠?”



전수천 (유치부)

## 대학부 수련회 후기

## 바울의 기쁨

저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압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을 압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부르짖는 마음을 느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제껏 제 자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알지 못 하였었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이번 대학부 겨울 수련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대학부 수련회는 빌립보서를 토대로 모든 강의와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자신의 감격과 고백들을 묵상하게 되었고 2000년 전 바울의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고백들이 저의 고백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기쁨에 대해 말을 합니다. 저 또한 그에 관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감사함과 기쁨을 전해야 하는, 저를 비롯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그 기쁨을 누리지 못 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 4:4).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 의미있는 것은 이 당시 바울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진정 그리스도의 참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대학부 수련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대학부에 속한 저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기쁨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14). 나를 비롯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꽃대를 좇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공부, 봉사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아갈 것임을 느낍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역시 오직 나의 주님만이 영광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게 지금도 그리스도의 무한한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으로 인한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으로 비전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부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 분과 같이 죽을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대학부 수련회는 저와 대학부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과 기쁨과 감사와 비전을 알게 하는 신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 4:23). 아멘.



권덕무 (대학부)

## 청서기 훈련을 마치고

##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은 그토록 기도를 하셨을까? 높은 보좌 버리고 최 많은 세상에 오셔서 왜 그토록 기도하셨을까? 나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듣고 보면 내가 정말 죄 많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본받고 싶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깨끗한 분이셨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날 위해 당할 십자가 고난에 앞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면서 어그러지고 할렐루야 내 맘에 큰 위로와 평안이 넘쳤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선 이 빌레 같은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값어치로 산 만큼 제물로 살아드리고 있는지 회개하게 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늘 깨어 있어라! 늘 내 죄를 회개하라!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말씀에 귀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겐 끝없는 환난과 시험이 오지만 늘 기도로 무장할 때에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늘 기도로 깨어 있기에! 그래서 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 굶주려도 영적으로 굶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에 올라섰으면 멈춰 서 있지 말고 늘 전진하는 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총으로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또 주님의 기도를 배울 때에 내가 하고 있었던 기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받고자 하는 것만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그것’을 섬기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명예, 인기, 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했던 내 모습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내 안에 놀라운 은총이 있고 그것을 감사하는 기도가 있길 바라고 늘 새롭게 채워주시는 비전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고난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고난한 마음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예전의 기도가 없던 삶이 얼마나 불쌍했는 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삶이 점점 어둡게 생생력 없이 허무하게 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미 부한 심령이 가차 처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난한 심령이 있길 원합니다. 주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말라 메달리며 울면서 말씀 달라고 간구하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길이 되고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강진규 (대학부)

## 새 가족과 함께

## 인생의 전환점을 지나며

젊은 시절 치기이런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자 하는 기대 속에서 타 종교를 가지고, 제 자신이 판단한 형식에 얽매지 않은 자유를 탐닉하며 기독교 신앙이라는 단어와는 절절 떨어진 삶을 살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기간이 45년에 다가가면서 이제는 살아갈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 더 짧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내 자신을 감싸며 묘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신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교회에 나가 예수님 앞에서 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주저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던 중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한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충현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학습을 받으면서 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종교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쁜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죽음의 의미를 깊이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하며 회개를 통해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수록 더욱더 마음의 평안을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간직하고 생활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생가나 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윤광 (새가족부)

## 교회탐방 55 4교구 바울전도회

# 새롭게 거듭난 전도하는 전도회

교회는, 지금까지 간접전도에만 국한된 전도를 하다가 올해부터 직접전도로 방향을 정하고 교구 별로 전도구역을 나누어 그 구역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고 전도를 하게 되었다. 교구의 각 전도회에서는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맡겨진 지역으로 매주 전도를 나가고 있다.

4교구의 바울 전도회 회원들은 지난 2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봉은사로 부근의 장래진 지역으로 2인 1조를 이루어서 그 첫 발을 내딛었다. 그들의 각오와 헌신을 들어본다.



본명이 결신자가 생겼습니다.

**이병근 집사** : 바울 전도회는 55세 이상의 남자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전도를 나간 첫 전도는 아주 좋았습니다. 반응도 좋은 편이어서 결신자를 위해 만달에 두번씩 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박필택 집사** : 천주교를 믿거나 다른 교회에 다니거나 무신론자라며 억압은 귀찮아 하는 대답을 들었던 일년 동안 지속적으로 찾아가면 본명이 결신자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서초구에 사는데 그곳은 전도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그곳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전도교육을 꼭 받고 은혜로 충분한 가운데 전도 대상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권오준 안수집사** : 처음 시작이라 결신자는 없었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주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본명이 결신자가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전도를 다니다보니 갑작스런 질문을 받았을 때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준비보다 성경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백종운 집사** : 처음이라 그런지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냉담한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도 교회의 집사님을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임을 얻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꾸준히 나가면 본명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 분이 계시길 믿습니다.

**차신득 장로** : 전도위원회에서 정한 총연교회 중심으로 구역을 나누어 직접전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년 동안 이렇게만 하면 한 가구로 빠지지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성 집사** : 문을 아예 안 열어 준다거나 다 알고 있다며 귀찮아 하는 대답들을 많이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면

**문요식 집사** : 안 의상실의 여 직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태신자 카드를 받았는데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을 붙지 못하는 것 같아 다음에 제 아내와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은 정말 하나님의 예비한 영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도는 주님께 서 우리에게 하신 지상명령으로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겠습니다.

**김갑환 집사** : 전도 대상자와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가서 그 사람과의 친분을 쌓아 나간다면 본명이 된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일천 집사** : 저는 딱 얻어 혼자 상가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다녔습니다. 같은 곳을 여러번 가는 것이 직접전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운화 집사** : 노방전도만 애썼는데 막상 방문전도를 하려고 하니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결신자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요즘 교회들의 전도회는 전교를 위한 전도회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증언의 전도회는 다르다. 전도하는 전도회로 거듭나고 있는 총연교회를 향한 은총의 손길 이 느껴진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만..."**

**"그러나 주께서 진리로 너희의 여러 띠를 띠고 외의 옷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고쳐 두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엡 6:14-17)**

(편집)

## 다음 주일 찬화

### 358장 아침해가 돌을 때

이 곡은 한국의 성도가 많이 부르는 건구의 찬송이나 작사자나 작곡자가 모두 불명으로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의 빛이시며 구원이시라는 복음의 소식이 아침 해와 같이 비추어질 때 참 진리를 깨닫고 흑암 속에 있는 심령에 믿음과 용기를 주어 고통 중에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을 찬양하는 곡이다.

1절은 **주님의 아드님과 그 그늘에 있는 영혼에 아침 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비추어질 때 우리도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 변하여 빛의 사람을 감당하는 것이다**

후렴은 **이 귀한 사랑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아드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의 자의 사랑을 감당하며 세월을 이길 것을 찬양한다**

2절은 **주의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도 햇빛이 되게 해 달라는 건구다. 빛 중의 빛이 되게 해 달라는 것이다**

3절은 **귀한 시간을 버려서 햇빛되게 해 달라는 건구다. 초가 빛을 밝히는 데는 자신을 희생해야 하듯 우리가 빛을 밝히는 데는 물질과 시간과 헌신의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 희생이 뒤따르지 않는 빛사는 말 뿐인 봉사로 빛이 날라야 날 수가 없다**

4절은 **주의 사랑을 나타내 햇빛되게 해 달라는 건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아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등불로서의 사랑을 감당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의 밝은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총연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찬양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위원회)

## 새 가 목 을 한 영 합 니 다

| 번호  | 성명   | 교구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소속부서 | 인도자     |
|-----|------|---------|---------|-----|-----|---------|---------|-----|-----|---------|---------|
| 595 | 김인성  | 19 청년1부 | 김영준(17) | 612 | 문현식 | 15 청년2부 | 김순재(8)  | 629 | 김태근 | 19 청년1부 |         |
| 596 | 백인후  | 19 외신부  | 서준성(1)  | 613 | 정현호 | 2 청년2부  | 정경재(7)  | 630 | 김원성 | 7 청년2부  |         |
| 597 | 필데이비 | 19 외신부  | 양혜재(17) | 614 | 최영철 | 4 청년1부  | 신은혜(11) | 631 | 전영민 | 7 청년2부  | 최영철(1)  |
| 598 | 정순자  | 2 청년1부  | 서해진(15) | 615 | 조영민 | 19 대학부  | 김복희(14) | 632 | 유원복 | 13 소양부  | 홍윤미(13) |
| 599 | 이민애  | 15 청년3부 | 양선영(15) | 616 | 정영선 | 9 청년2부  |         | 633 | 배근우 | 12 야마다부 | 설희재(8)  |
| 600 | 마유시킴 | 19 외신부  | 문숙영(11) | 617 | 이희숙 | 3 청년1부  | 안희순(8)  | 634 | 이효숙 | 7 야마다부  | 박유진(7)  |
| 601 | 박승훈  | 1 청년1부  | 이상복(8)  | 618 | 박주은 | 12 청년1부 | 이연준(2)  | 635 | 류재현 | 9 야마다부  | 남은혜(10) |
| 602 | 이남현  | 15 청년1부 | 이영동(13) | 619 | 김종훈 | 14 청년2부 | 이성원(17) | 636 | 유성희 | 19 청년1부 | 권경자(2)  |
| 603 | 류지연  | 19 청년2부 | 박지영(8)  | 620 | 정영은 | 18 청년2부 | 차영희(7)  | 637 | 김영숙 | 12 청년1부 | 이연희(12) |
| 604 | 김기훈  | 18 청년1부 | 이현애(4)  | 621 | 박국원 | 17 청년1부 | 박재경(17) | 638 | 이명옥 | 19 청년1부 | 김현진(5)  |
| 605 | 정상진  | 19 대학부  | 김희(13)  | 622 | 정영숙 | 5 청년1부  |         | 639 | 이은혜 | 18 청년3부 | 박소영(18) |
| 606 | 홍귀남  | 1 청년1부  | 김승균(1)  | 623 | 김희문 | 19 대학부  | 김태희(15) | 640 | 황규진 | 19 대학부  | 김진희(19) |
| 607 | 이희   | 13 청년2부 | 영희자(17) | 624 | 하   | 19 외신부  | 이유진(14) | 641 | 박수영 | 19 청년1부 | 이영희(14) |
| 608 | 이정은  | 1 교역자   |         | 625 | 김하  | 14 청년1부 | 김종관(8)  | 642 | 소혜영 | 19 청년2부 | 소영희(1)  |
| 609 | 김원희  | 1 교역자   |         | 626 | 고혜미 | 1 청년2부  | 정지희(1)  | 643 | 전유정 | 19 대학부  | 김영자(12) |
| 610 | 김택서  | 1 교역자   |         | 627 | 이필도 | 10 청년1부 | 김승희(10) | 644 | 김현진 | 19 청년1부 | 이은혜(17) |
| 611 | 조진영  | 1 교역자   |         | 628 | 손지연 | 19 청년1부 |         | 645 | 이명종 | 19 청년1부 | 홍은기(3)  |

※ 총연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교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 선교사 송요한